

## 正己篇(上)

性理書云、見人之善而尋己之善 見人之惡而尋己之惡 如此 方是有益。

⇒ 《성리서》에 이르기를, 다른 사람의 착함을 보고 자신의 착함을 찾고, 다른 사람의 악함을 보고 자신의 악함을 찾게 되니 이같이 하면 드디어 이로움이 있을 것이다.

⇒ 《性理書》に伝わるのに他人の善良さを見て自分の善良さを捜し、他人の悪さを見て自分の悪さを捜すようにすると良さがあるでしょう。

景行録云、大丈夫 當容人 無爲人所容。

⇒ 《경행록》에 이르기를, 대장부는 마땅히 남을 용서할지언정 남에게서 용서를 받아서는 안 된다.

⇒ 《景行録》に伝わるのに大丈夫は適切に人を許すことはあっても他人に許しを受けてはならない。

太公曰、勿以貴己而賤人 勿以自大而蔑小 勿以恃勇而輕敵。

⇒ 태공이 말하기를, 자기의 몸이 귀하다고 남을 천하게 여기지 말며, 자기 자신이 크다고 하여 남의 작음을 멸시하지 말고, 자신의 용맹을 믿고 적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 太公が言うのに自分の身は大事だとして他人を軽視しないこと。自分自身が大きいからと言って他人の小ささを見下さないこと。自分の勇猛を信じて敵を軽く見てはならない。

馬援曰、聞人之過失 如聞父母之名 耳可得聞 不可言也。

⇒ 마원이 말하기를, 남의 잘못을 듣거든 마치 어버이의 이름을 들은 것처럼 하여, 귀로 듣더라도 입으로는 말하지 말라.

⇒ 馬援が言うのに他人の過ちを聞いたらまるで両親の名前を聞いたようにして、耳で聞いて도口では言わないこと。

古書との出会い 正己篇(上)

康節召先生曰、聞人之謗 未嘗怒 聞人之譽 未嘗喜 聞人之惡 未嘗和。聞人之善則就而和之又從而喜之。

其詩、樂見善人 樂聞善事 樂道善言 樂行善意。聞人之惡 如負芒刺 聞人之善 如佩蘭蕙。

⇒ 강 절 소선생이 말하기를, 남으로부터 비방을 듣더라도 화내지 말고, 남으로부터 칭찬을 듣더라도 기뻐하지 말며, 남으로부터 악한 말을 듣더라도 이에 곧 부화뇌동하지 말라. 남의 착한 말을 듣거든 곧 나아가 화하게 하고 또 그를 따르며 기뻐하라.

시에 말하기를, 착한 사람 보기를 즐거워하고, 착한 일 듣기를 즐거워하며, 착한 말 전하기를 즐거워하고, 착한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라. 남의 악을 듣거든 몸에 가시를 지닌 듯이 하고, 남의 착함을 듣거든 몸에 난초를 지닌 것처럼 하라.

⇒ 康節召先生が言うのに他人から誹謗を聞いても怒らず、他人から褒め言葉を聞いても喜ばなく、他人から悪い言葉を聞いてもここに附和雷同しないこと。他人の善良な言葉を聞いたら進んで誉めてまた彼に尽しながら喜ぶこと。

時経に言うのに善良な人を見るのを楽しみにして、善良な事を聞くのを楽しがって、善良な言葉を伝えるのを楽しがって、善良な志を行うのを楽しくすること。他人の悪を聞いたら身に刺を持ったようにして、他人の善良さを聞いたら身に蘭を持ったようにすること。

道吾善者 是吾賊 道吾惡者 是吾師。

⇒ 나를 착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곧 나에게 해로운 사람이고, 나의 나쁜 점을 말하여 주는 사람은 곧 나의 스승이다.

⇒ 私を善良だと言う人はすなわち私に有害な人で、私の悪い点を言ってくれる人はすなわち私の師である。

太公曰、勤爲無價之寶 慎是護身之符。

⇒ 태 공이 말하기를, 근면함은 값으로 따질 수 없는 보배이며 근신함은 몸을 보호해주는 호신부이다.

⇒ 太公が言うのに勤勉さは値段で計算することができない財宝で、謹身することは身を保護してくれる護身符である。

景行録曰、保生者 寡慾 保身者 避名 無慾 易無名 難。

⇒ 《경행록》에 이르기를, 삶을 올바르게 보전하려는 사람은 욕심을 적게하고, 몸을 온전히 지키려는 사람은 세상에 이름 내기를 피한다. 욕심을 내지 않기는 쉬우나 이름 내지 않기는 힘들다.

⇒ 《景行録》に伝わるのに生を正しく保全しようとする人は欲求を少ないようにして、身を完全に守ろうとする人は世の中に名前が広がるのを避ける。欲張らないのは易しいが名前を広げないようにするのは難しい。

古書との出会い 正己篇(上)

子曰、君子有三戒 小之時 血氣未定 戒之在色 及其壯也 血氣方剛 戒之在鬪 及己老也 血氣既衰 戒之在得。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는 경계할 것이 세 가지 있으니 젊은 때에는 혈기가 왕성해서 그 정도를 알 수 없어 여색(女色)을 경계해야 하고, 장년에 이르러 장성함에 따라 혈기가 또한 왕성하므로 싸움을 경계해야 하며, 늙어 감에 따라 혈기가 이미 쇠약해졌으므로 욕심을 내어 얻고자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

⇒孔子が言うのに君子は警戒することが三つあるから若い時には血気が旺盛でその程度を知ることが出来ず女色を警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し、長年に至って成長するによって血気がまた旺盛なので喧嘩を警戒しなければならないし、年を取って行くによって血気がもう衰えたので欲張って得ようとするのを警戒しなければならない。

孫真人養生銘云、怒甚偏傷氣、思多太損神。神疲心易役 氣弱病相因。勿使悲歡極 當令飲食均 再三防夜醉 第一戒晨嘔。

⇒손진인 양생명에 이르기를, 성을 심하게 내면 기운이 한쪽으로 치우쳐 상하게 되고, 생각을 많이 해 신경을 쓰게 되면 정신을 크게 상하게 된다. 정신이 피로해지면 마음이 쉽게 고달파지고, 기운이 약해지면 그에 따라서 병이 생기게 된다. 너무 지나치게 슬퍼하거나 기뻐하지 말고, 음식은 마땅히 골고루 취하여야 하며, 밤에 술에 취하는 것은 두 번 세 번 삼가야 하고, 새벽에 성내는 것을 가장 경계해야 한다.

⇒孫真人の養生銘に伝わるのに怒をひどくすると機運が偏って悪くなるし、考えをたくさんして氣を使うと精神を大きくいたむようになる。精神が疲れられると心が簡単に疲れるし、機運が弱くなればそれに仕がって病気になる。ひどく悲しむとか喜ばずに、食べ物は適切にまんべんなく食べるし、夜に酒に酔うことは二度三度慎まなければならないし、夜明けに怒ることを一番警戒しなければならない。

景行録云、食淡精神爽 心清夢寐安。

⇒《경행록》에 이르기를, 음식이 깨끗하면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이 맑으면 잠도 편안해진다.

⇒《景行録》に伝わるのに食べ物が綺麗ならば心が明るくなって心が清ければ寝ることも平安になる。

定心應物 雖不讀書 可以爲有德君子。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사물을 대하면 비록 책을 읽지 않더라도 능히 덕이 있는 군자가 될 수 있다.

⇒心を楽にさせて物を接すればたとえ本を読まなくても充分に徳のある君子になることが出来る。

古書との出会い 正己篇（上）

近思録云、懲忿 如救火 窒慾 如防水。

⇒ 《근사록》에 이르기를, 분함을 억누르기를 불을 끄듯이 하고, 욕심을 누르기를 물을 막듯이 해야 한다.

⇒ 《近思録》に伝わるのに悔しさを押えつけるのを火を消すようにして、欲を抑えるのを水を阻むようにすること。